

# 익산문화권 대표 박물관 기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익산박물관으로 새롭게 재단장 8월 준공·내년 3월 개관 예정

기존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 3월부터 국립익산박물관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은 2015년 12월 30일에 국립으로(기존도립) 전환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새롭게 건립 중인 박물관의 개관을 위해 익산박물관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기존 전시관 바로 앞에 새롭게 건립 중인 익산박물관은 8월 준공, 연말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3월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익산박물관은 미륵사지 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보물1991호인 사리내외호, 사리봉영기, 청동함 등)'를 비롯하여 국보 제123호 '왕궁리오층석탑 사리장엄구' 등 익산문화권의 주요유물 3만5천 여점을 보유할 예정이며, 사적지 내에 위치한 점을 감안하여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게 하든무지엄(숨은박물관)으로 설계, 건립 중으로 완공 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미륵사지를 더욱 알차게 채워줄 예정이다.



국립익산박물관 조감도.

정상기 익산박물관장은 "익산박물관은 13번째 국립박물관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익산역사지구의 역사와 문화를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익산문화권 대표 박물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익산=조용주 기자

## “문화예술로 즐거운 시간 누리세요”

원주향토예술문화회관, 공모사업 잇단 선정... 1억1300만원 지원

원주향토예술문화회관이 올해 공연, 전시,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방방곡곡 문화 공감 문예회관 기획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전북문화관광재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그 결과 올해 현재까지 총 6개 사업에 선정, 1억13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는 전체 운영비가 연 2억여원인 상황에 비춰보면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원주향토예술문화회관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원주향토예술문화회관은 2016년 원주군 직영체제에서 2017년 (재)원주문화재단의 수탁 운영 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7개 사업에 선정돼 총 1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여기에 비예산 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12개 사업을 운영해왔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올해는 원주군의 청년일자리지원사업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기관 연구 지원사업으로 인력 지원도 받게 됐다.

이재정 관장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사업에 운영 예정인 비예산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지난해보다 더욱 활발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4월 원주향토예술문화회관을 찾는다면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로 즐거운 시간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정읍시 정읍시예술회관과 전북발레시어터가 올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공모에 선정돼 다양한 문화사업을 실시한다.

## 정읍시예술회관·전북발레시어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공모사업 선정

내달부터 매주 2회 무료 공연 실시

정읍시 정읍시예술회관과 전북발레시어터(대표 박진서)가 올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공모에 선정돼 다양한 문화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정읍시예술회관은 지난 1월 전북발레시어터와 협약을 맺고 공모사업에 응

모, 여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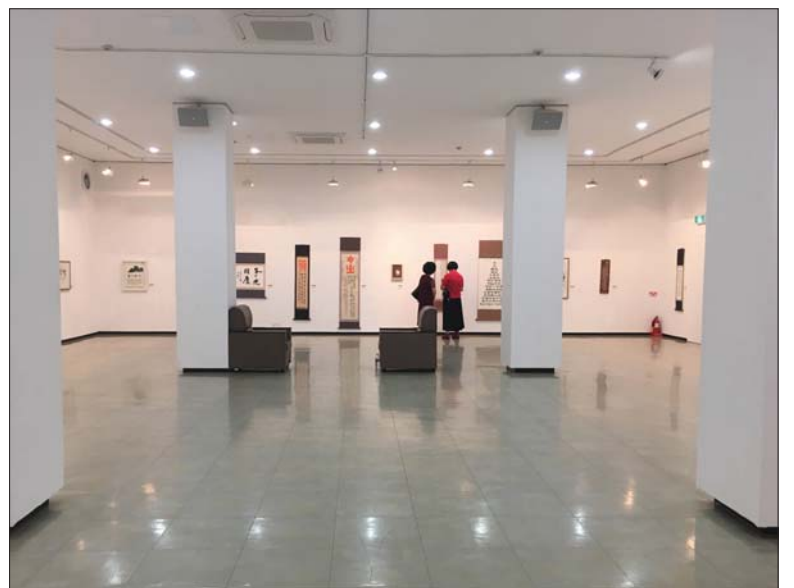
시에 따르면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2019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국비 7천만원을 지원받는다.

관련해 전북발레시어터는 발레수업을 오는 4월부터 매주 2회(화·금요일) 무료로 진행한

다. 또 올해 공연으로 1개의 초연 창작 작품과 4개의 작품을 올릴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의 상생 협력을 통해 단체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공연장을 활성화로 시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이 2019년 전북예술회관 하반기 대관을 모집한다.

## 전북예술회관, 이달 29일까지 하반기 전시실 대관 접수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019년 전북예술회관 하반기 대관을 모집한다.

이번 하반기 정기 대관은 오는 6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총 6개월 간 매주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7일간 대관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이달 29일 오후 6시까지 재단 3층 사무처(경영지원부)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대관 신청서와 계획서를 내려 받아 제출하면 된다.

대관 시설은 기스타1(95평), 기스타2(42평), 차오름1(67평), 차오름2(41평), 미리내(66평)로 총 5개의 전시실이 있다.

재단 관계자는 "전북예술회관 전시대관은 많은 미술 단체에 우수한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들에게 다양한 미술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자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및 경영지원부로 확인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